

《Diamond Mountains: Travel and Nostalgia in Korean Art》

February 7-May 20, 2018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000 5th Ave, New York, NY

서 환 희*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은 미술관이었다. 다수의 작품들이 남북정상회담장 평화의집 곳곳을 채웠다. 가장 주요한 시각 상징물은 금강산 그림이었다. 2층 주회담장 벽면에는 신장식(1959~)의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2001년)이, 3층 연회장 복도에는 정선(1676~1759)의 <단발령 망금강>과 <금강내산>을 조합한 이이남(1969~)의 미디어아트 <평화의 길목>이 설치되어 회담의 상징성을 고양하였다.

같은 기간, 정선에서 신장식까지 금강산 재현의 명맥을 소재로 한 전시가 이역만리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실 개관 20주년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기획한 금강산 특별전이 그것으로, 총 21건 27점의 회화와 도자 1점을 소개하며 현지의 높

은 관심을 끌었다. “기행과 향수”라는 전시 부제 아래, 한국실(168m²) 4면에 네 편의 소주제를 각각 배치한 ①정선과 진경산수, ②확장된 19세기 경향, ③19세기 실경산수, ④금강산의 현대적 조형) 명료한 구성이 돋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미술사에 친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금강산 기행사경의 전통과 변천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첩·병풍·선면화·화권·화축에서



* Ph.D. candidate, Columbia University

대형 캔버스까지 각종 형식을 망라하는 한편, 민화 작품과 도자기까지 추가함으로써 금강산이 18세기 이래 시각문화를 주도해왔던 이미지 중 하나로 기능해 왔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본 전시는 기행과 향수라는 전시 의제를 일관성있게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시실 내 주목도가 가장 높은 중앙 가림벽에는 이응노(1904~1989)가 1950년대 어느 무렵 과거 답사를 추사하여 제작한 <정양사망금강>이 자리 잡았다. 전쟁 이후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금강산을 회고한다는 점에서 전시 주제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 같은 제작 맥락을 공유하는 변관식(1899~1976)의 <외금강 삼선암 추색>(1966)이 가림벽 반대편에 걸려 있어, 전시 의제에 대한 관람객의 즉각적인 공감을 가일층 유도해 내었다.

기행이라는 키워드는 전시실을 회람하며 추체험하는 금강산으로의 가상여행과 공명한다. 출발점에는 정선의 가장 이른 기년작이자 화가가 직접 탐승하며 제작하였음이 분명한 작례로 잘 알려진 <풍악도첩>(1711)이 배치되었다. 화첩 중 6폭이 선택, 배열된 방식이 인상적이다. 중간 기착지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단발령망금강> 이후, <금강내산 총도>, <불정대>, <백전교>, <해산정>, 마지막으로 <충석정> 순이다. 이는 당시 한양에서 내외금강을 거쳐 해금강을 유람하는 일반적인 여정을 관람 방향과 일치시킨 것으로, 해외 관람객이 상상할 만한 여행 경로와 궤를 같이 하는 효과를 자아내었다. 정선의 1711년 유람이 일반적인 여정과 반대 방향이었다는 연구가 제출되었던 바, 장면 배치의 의도성이 엿보인다. 한편 정선의 금강산도가 실제 여행의 시각적 대체물로 기능했다는 학계의 연구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본 전시는 소주제간의 순조로운 전환에 공을 들였는데, 신학권(1785~1866) 작품의 활용이 좋은 예이다. 제1주제인 정선 작품들을 전시실 서벽을 통해 감상한 관람객의 시선은 곧 전시실 중앙 유리장으로 향한다. 그 안에는 정선의 <봉래전도>(18세기중엽)와 신학권의 <금강내산총도>(19세기중엽)가 함께 펼쳐져 있다. <금강내산총도>는 박물관이 2017년 구입한 작품으로 미상의 정선 작품을 임모하였다는 화가의 발문을 담고 있다. 즉, 18세기(제1주제)에서 19세기(제2, 3주제)로의 이행이 두 화권의 양식적 친연성과 신학권의 발문을 통해 매개, 예시되는 셈이다. 동시에, 제2주제가 전개되는 북벽의 도입부에는 신학권의 또 다른 작품 <금강산도 8폭 병풍>(1861)이 민화 계통 작품들과 함께 배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선의 산수화풍이 민화 금강산도로 변화한 양상을 제시한다.

제3주제가 전개되는 전시실 동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금강산도 작품들이 마련되어 있다. 김홍도(1745~1806 이후) 전칭의 <수미탑>(18세기 말~19세기 초)과 김하종(1793~1875 이후)의 <해산도첩>(1815) 중 3폭이 진열되어 화원 화가들에 의해 변화된 구도와 묘사 방식을 보여준다. 병렬된 작자미상의 <금강산도권>(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상술

한 <봉래전도> 및 <금강내산총도>과 비교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전시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전시 유기성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제4주제에서도 현저하였다. 최후의 도화서 화원 조석진(1853~1920)의 10폭 병풍(1918)을 금강산의 현대적 시각화를 조명한 전시실 남벽 첫머리에 두어 전근대에서 현대로의 무난한 이행을 이끌었다. 1920년대 초 방문한 엘리자베스 키스(1887~1956)의 다색판화 작품 두 점이 이어지는데 그 중 구룡담을 소재로 한 작품은 다시 그 옆 박대성(1945~)의 <금강산 구룡폭도>(2004)와 비교되는 식이다. 전시의 마무리는 누구보다 금강산에 천착한 화가 신장식의 <금강산 천화대의 빛>, <비오는 금강산 만물상>(2014)이 장식하며 금강산도의 현재성을 반영하였다.

금강산은 수수만년의 명승지이자 영험한 성역, 민족적 자의식의 체화로 인지되어 왔다. 분단과 갈등, 한시적이었던 금강산 관광(1998~2008)으로 기억되는 남북의 협력과 좌절을 함축하기도 한다. 그 복합적인 상징성이 판문점에서 작동하였고, 비슷한 시기 뉴욕에서 기행과 향수라는 테마를 통해 소개되었다. 두 사건의 동시성은 메트로폴리탄이 기획한 금강산 특별전의 현재적 의의를 방증한다.